





VACHERON CONSTANTIN
GENÈVE


Les Cabinotiers
**RÉCITS
DE
VOYAGES**

전 세계의 예술과 문화를 예찬하는
워치메이킹 오디세이

LES CABINOTIERS 그리자이유 하이
주얼리 - 용

엠바고 해제 : 2023년 11월 27일 오후 5시

개요

바쉐론 콘스탄틴과 아시아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의 그린 그리자이유

칼리버 1120: 전설적인 울트라-씬
무브먼트

LES CABINOTIERS 헤씨 드 보아지
RECITS DE VOYAGES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LES CABINOTIERS 그리자이유 하이 주얼리 - 용

- Les Cabinotiers - Recits de Voyages는 바쉐론 콘스탄틴 설립 이래로 메종의 특징으로 손꼽혔던 세상을 향한 열린 시각을 바탕으로 전 세계와 그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여정을 통해 중국과 고대 문화가 돋보이는 특별한 모델을 선보입니다.
- 메종의 마스터 에나멜 장인은 최초로 그리자이유 기법을 활용한 그린 에나멜로 다이얼 위에 5개의 발톱을 지닌 전설적인 제국의 용을 구현하여 생동감 넘치는 독창적인 찬사를 보냅니다.
- 바쉐론 콘스탄틴의 탁월한 기술력을 상징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치에는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되며, 울트라-씬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인 인하우스 칼리버 1120으로 구동됩니다.

새로운 Les Cabinotiers - Recits de Voyages의 싱글 피스 에디션 타임피스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지리적 확장을 의미합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바쉐론 콘스탄틴과 중국 간의 최초의 접촉은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었으며, 중국은 반드시 방문해야 할 여행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경의를 표하는 Les Cabinotiers 그리자이유 하이 주얼리 - 용 위치는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로 그린 그리자이유 에나멜 다이얼이 탑재되며, 이는 5개의 발톱을 지닌 전설적인 제국의 용을 위한 독창적인 배경으로 활약합니다.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타임피스는 현재까지 생산된 가장 얇은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중 하나인 매뉴팩처 칼리버 1120으로 구동됩니다.



LES CABINOTIERS 그리자이유 하이 주얼리 - 용

개요

바쉐론 콘스탄틴과 아시아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의 그린 그리자이유

칼리버 1120: 전설적인 울트라-씬 무브먼트

LES CABINOTIERS 헤씨 드 보야지 RECITS DE VOYAGES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바쉐론 콘스탄틴과 아시아

예술 공예 기법을 구체화시키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인간적인 모험에 더욱 풍성함을 더하는 Les Cabinotiers - Recits de Voyages는 메종의 성장 과정 속에서 다양한 역사적 단계를 상징하는 여행지를 향한 상상 속 워치메이킹 오디세이를 담고 있습니다. 컬렉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싱글 피스 제품은 바쉐론 콘스탄틴이 개척했던 다양한 대륙의 예술과 문화를 연상시킵니다. 19세기 초에 시작되었던 전 세계적인 확장의 여정에는 중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황제를 위해 1865년경 제작된, 섬세한 펄과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블루 에나멜 포켓 워치 또한 이를 증명합니다. 당시 중국에는 두 차례 아편 전쟁을 치른 후 서구 열강과 체결한 조약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열강과의 충돌은 1860년 제국의 수도와 진귀한 워치메이킹 보물의 보금자리이기도 했던 이화원 모두가 약탈당하면서 전쟁의 상흔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컬렉션을 다시금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량 있는 중국 매뉴팩처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는 바쉐론 콘스탄틴을 비롯한 유럽 최고의 장인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19세기 전반 중국 시장의 전망을 살피기 시작하여 1845년이라는 이른 시기에 사업적인 접촉의 기록을 가진 메종은 이미 중국 내에 굳건히 입지를 쌓은 상태였습니다.



개요

바쉐론 콘스탄틴과 아시아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의 그린 그리자이유

칼리버 1120: 전설적인 울트라-핀 무브먼트

LES CABINOTIERS 헤씨 드 보야지 RECITS DE VOYAGES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LES CABINOTIERS 그리자이유 하이 주얼리 - 용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의 그린 그리자이유

바쉐론 콘스탄틴은 이 타임피스에 다이얼에 풍성함을 더하고 5개의 발톱을 지닌 전설적인 용을 강조하고자 새로운 그리자이유 에나멜링 기법을 고안했습니다.

강인함, 고귀함, 행운을 상징하는 용의 곁에는 늘 지혜를 상징하는 뿔이 함께합니다.

16세기부터 이어져 온 그리자이유 기법은 특별한 깊이감을 부여하는 명암 효과로 모티프를 드러냅니다. 지금은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이 기법은 다크 에나멜 베이스에 리모주 화이트로 알려진 진귀한 화이트 에나멜의 레이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각 레이어는 초단위로 명시된 정확한 시간 동안 가마에서 소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성 과정 동안 용의 디테일이 점점 분명해지면서 점차 정교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용의 모습으로 밀도를 더합니다. 보통 에나멜링 장인의 작업은 래핑 처리한 반투명 에나멜 레이어를 최종적으로 적용하여 광채와 깊이 효과로 대비되는 이미지를 연출하며 마무리됩니다.

메종의 마스터 에나멜링 장인은 이번 타임피스를 위해 리모주 화이트의 초반 작업에 적용되는 반투명 에나멜에 그린 컬러를 입히는 다른 접근법을 선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컬러링은 전설적인 용의 모습을 돋보이게 합니다. 깊이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마스터 에나멜링 장인은 이후 레이어를 입히면서 가마에서 연이은 소성 공정을 거쳐 리모주 화이트 컬러로 더욱 섬세한 감각의 터치와 함께 마무리합니다. 이 타임피스에 최초로 적용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그리자이유 에나멜과 젼 세팅의 조합입니다. 18K 화이트 골드의 직경40mm 케이스의 베젤, 미들, 러그에는 7.1캐럿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146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크라운에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반대로 세팅했습니다. 함께 장착된 다크 그린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은 16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화이트 골드 핀 버클이 특징입니다.



개요

바쉐론 콘스탄틴과 아시아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의 그린 그리자이유

칼리버 1120: 전설적인 울트라-씬 무브먼트

LES CABINOTIERS 헤씨 드 보야지
RECITS DE VOYAGES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칼리버 1120: 전설적인 울트라-씬 무브먼트

Les Cabinotiers 그리자이유 하이 주얼리 - 용 위치는 우아한 실루엣으로 차별화된 감각을 선사합니다. 두께가 단 8.9mm에 불과한 케이스가 장착된 이 모델은 울트라-씬 칼리버에 대한 메종의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의 울트라-씬 칼리버는 19세기에 등장하였으나, 메종은 손목시계에서 편안한 착용감을 기대하는 고객을 만족시키고자 20세기 전체에 걸쳐 얇은 두께가 돋보이는 여러 개의 무브먼트를 개발했습니다. 일례로 1911년에는 바쉐론 콘스탄틴에 직경은 다르지만 두께는 모두 2.82mm인 3개의 칼리버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얇은 두께를 지향하는 탐구 정신은 1917년에는 두께가 2.25mm, 1924년에는 1.88mm에 불과한 무브먼트의 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1955년, 메종은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가장 얇은 두께인 1.64mm로 완성된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인 칼리버 1003을 선보였습니다.



LES CABINOTIERS 그리자이유 하이 주얼리 - 용

개요

바쉐론 콘스탄틴과 아시아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의 그린 그리자이유

칼리버 1120: 전설적인 울트라-씬 무브먼트

LES CABINOTIERS 헤씨 드 보야지 RECITS DE VOYAGES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두께가 단 2.45mm에 불과한 칼리버 1120은 정교한 기술력과 우아한 디자인을 결합하려는 동일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1968년에 선보였던 이 무브먼트는 2010년, 말테 크로스 형태를 닮은 18K 골드 로터를 더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했지만, 파워 리저브는 40시간으로 더 길어졌습니다. 영예로운 제네바 홀마크 인증을 받은 이 타임피스에는 꼬뜨 드 제네브 모티프, 원형 그레인, 챔퍼링, 수직 그레인 처리된 측면과 같이 장식 및 마감 기법 면에서 더욱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144개의 부품과 시간당 19,800회 진동(2.75Hz)하는 레귤레이터를 갖춘 최신 세대의 칼리버 1120은 화이트 골드 리프형 핸즈에 동력을 제공합니다.



LES CABINOTIERS 그리자이유 하이 주얼리 - 용

개요

바쉐론 콘스탄틴과 아시아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의 그린 그리자이유

칼리버 1120: 전설적인 울트라-씬 무브먼트

LES CABINOTIERS 헤씨 드 보야지 RECITS DE VOYAGES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Les Cabinotiers 헤씨 드 보야지 Recits de Voyages 시리즈

바쉐론 콘스탄틴은 늘 제네바 워치메이킹 예술을 완성함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열린 시각을 유지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아 왔습니다. 창립자의 손자인 자크 바텔레미 바쉐론(Jacques-Barthelemy Vacheron, 1787~1864년)이 처음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중흥무진 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메종의 성공을 진두지휘했던 지치지 않는 여행자이자 파트너 프랑소아 콘스탄틴(Francois Constantin, 1788~1854년) 역시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미국, 중국, 브라질, 홍콩, 쿠바에서 거점을 마련하던 시기에 그는 중부 유럽, 남아메리카, 스칸디나비아, 아시아와도 상업적인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25년에 걸쳐 이어진 프랑스와 콘스탄틴의 서신에는 나폴레옹 전쟁과 비엔나회의의 여파로 대대적으로 재편되고 있던 유럽에 개방된 매뉴팩처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이름은 국경을 초월하여 계속해서 확장을 거듭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 시기부터 메종의 가치에 여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재되었으며, 약 270여년간 이어진 인간적인 모험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메종은 헤씨 드 보야지 Recits de Voyages를 통해 창립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장인 기술과 기계적 예술을 표현의 수단으로 삼아 세계와 경이로움을 탐구하는 워치메이킹 오디세이를 선보입니다.





VACHERON * CONSTANTIN
GENÈVE

LES CABINOTIERS 그리자이유 하이 주얼리 - 용

개요

바쉐론 콘스탄틴과 아시아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의 그린 그리자이유

칼리버 1120: 전설적인 울트라-씬 무브먼트

LES CABINOTIERS 헤씨 드 보야지 RECITS DE VOYAGES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요약

바쉐론 콘스탄틴이 장인 정신과 탁월한 기술력을 결합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Les Cabinotiers 타임피스로 구성된 Recits de Voyages 를 선보입니다. 19세기에 시작된 메종의 전 세계적인 확장에 헌정하는 이 컬렉션은 메종 설립 직후부터 증명해 낸 세상을 향한 열린 시각을 예찬합니다. 각각의 워치는 이 오디세이에서 이어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Les Cabinotiers 그리자이유 하이 주얼리 - 용은 1845년부터 바쉐론 콘스탄틴과 상업적인 측면에서 인연을 맺어 온 중국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워치의 다이얼에는 5개의 발톱을 지닌 제국의 용과 필이 장식되어 있고, 바쉐론 콘스탄틴 마스터 장인은 매뉴팩처 최초로 그린 그리자이유 에나멜을 사용하여 모티프를 구현했으며,

젼 세팅과 그리자이유 에나멜 다이얼을 조합하며 또 다른 최초의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타임피스의 케이스 베젤, 미들, 러그 전체에는 146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으며, 크라운에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제네바 홀마크 인증을 받은 이 워치는 2.45mm라는 얇은 두께와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구조가 돋보이는 전설적인 무브먼트인 셸프 와인딩 칼리버 1120으로 구동됩니다. 여기에는 직경 40mm, 두께 8.9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가 장착되며, 젼 세팅된 화이트 골드 핀 버클을 갖춘 다크 그린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LES CABINOTIERS 그리자이유 하이 주얼리 - 용

개요

바쉐론 콘스탄틴과 아시아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의 그린 그리자이유

칼리버 1120: 전설적인 울트라-씬 무브먼트

LES CABINOTIERS 헤씨 드 보야지 RECITS DE VOYAGES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Les Cabinotiers - Recits de Voyages 의 일부 모델에서 얇은 두께를 강조하셨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얻고 있나요?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 이래로 포켓 워치, 손목시계, 링, 소프와 네크리스, 브로치와 같이 워치메이킹 예술의 모든 영역에서 활약하며 컴플리케이션,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울트라-씬 기계식 무브먼트에 대한 완벽한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울트라-씬 기계식 무브먼트 기술이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모델보다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설립 이래로 증명해 보였듯 울트라-씬 칼리버는 그와 동일한 수준의 재능과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19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메종의 책임자들이 주고받았던 서신에 “얇은 시계”라는 표현이 정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얇은 두께를 향한 탐구 정신은 20세기 전체를 아울러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그니처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39.20mm에 해당하는 17.5/12리뉴의 직경, 그리고 단 0.94mm의 두께와 기계식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출시된 1931년의 포켓 워치도 이를 증명합니다. 1955년 메종의 설립 200주년을 기념하여 출시된 칼리버 1003, 그리고 13년 뒤에 출시된 무브먼트이자 Les Cabinotiers 그리자이유 하이 주얼리 - 용 워치에 탑재된 칼리버 1120 또한 탁월한 미학이 돋보이는 울트라-씬 무브먼트를 향한 경향을 반영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시계에 사용된 기술적 솔루션과 부품 배치에서 형태의 감각과 같은 두 가지 모두에 심미안을 지닌 수집가들 사이에서 아이코닉한 칼리버로 손꼽힙니다. 추가적인 기능 모듈을 더한 동일한 칼리버 1120 덕분에, 투핸즈 또는 쓰리핸즈가 탑재된 시계에 적용된 사항이 컴플리케이션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하여 2013년에 겨우 3.90mm의 두께로 출시되어 당시 시장에서 가장 얇은 모델로 손꼽혔던 미닛 리피터 칼리버 1731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완벽하게 마스터한 두 가지 예술 공예 기법인 그리자이유 에나멜과 쟈 세팅이 이제서야 하나로 결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들 두 가지 기법은 매뉴팩처에서 완벽하게 마스터한 예술 공예 기법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전에 두 가지 기법을 결합하는 게 적합하지 않아 보였던 이유는 그리자이유 에나멜이 적용된 다이얼이 화려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고, 그 어떤 방해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사실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 명암 효과를 통해 놀라울 만큼 섬세한 디테일이 장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작년에 “Les Royaumes Aquatiques®” Les Cabinotiers 컬렉션을 통해 선보인 그리자이유 에나멜 모델은 쟈 세팅되지 않은 매끈한 베젤과 케이스가 특징이었죠. Les Cabinotiers 그리자이유 하이 주얼리 - 용 의 경우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로 다이얼의 그리자이유 에나멜에 그린 컬러를 부여한 만큼 메종의 디자이너가 뭔가 색다른 것을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나멜링 기법이 의도하는 명암 효과를 강조하면서도 광채가 돋보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케이스에 쟈 세팅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개요

바쉐론 콘스탄틴과 아시아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의 그린 그리자이유

칼리버 1120: 전설적인 울트라-씬
무브먼트

LES CABINOTIERS 헤씨 드 보야지
RECITS DE VOYAGES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LES CABINOTIERS 그리자이유 하이 주얼리 - 용

바쉐론 콘스탄틴과 중국은 오랜 역사를 함께했나요?

중국은 바쉐론 콘스탄틴이 19세기 중반부터 밀접한 유대 관계를 쌓아 왔던 멋진 나라죠. 2015년에는 스위스와 중국의 수교 6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바쉐론 콘스탄틴은 제네바 미술 역사 박물관 (Musée d'art et d'histoire, MAH)과 베이징 수도 박물관(Capital Museum)과 파트너십을 맺고 "시간의 중심, 제네바 - 스위스 워치메이킹 문화의 기원(Geneva at the Heart of Time -The Origin of Swiss Watchmaking Culture)"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아시아 사상 최대 규모의 워치메이킹 전시였던 이곳에서는 350여 점 이상의 타임피스, 도구, 회화, 인그레이빙을 선보였으며, 그중 3분의 1이 바쉐론 콘스탄틴의 헤리티지 컬렉션에 속했습니다. 또한 매뉴팩처는 베이징 수도 박물관의 전시 공간에 마스터 워치메이커, 인그레이빙 장인, 에나멜링 장인, 기요세 장인과 함께했습니다. 이 같은 일화를 통해서도 매뉴팩처에서 중국이 갖는 의미를 알 수 있으며, 현재 중국에는 30개 정도의 부티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고객들은 아름다운 워치메이킹(la belle horlogerie)과 정교한 장인 기술에 대한 안목이 뛰어납니다. 예술 공예 기법에 대한 심미안을 갖춘 중국 고객들은 이들 기법을 향한 꾸준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개요

바쉐론 콘스탄틴과 아시아

바쉐론 콘스탄틴 최초의 그린 그리자이유

칼리버 1120: 전설적인 울트라-씬 무브먼트

LES CABINOTIERS 헤씨 드 보야지 RECITS DE VOYAGES

요약

스타일 및 헤리티지 디렉터 크리스티앙 셀모니(CHRISTIAN SELMONI)와의 인터뷰

TECHNICAL DATA

LES CABINOTIERS 그리자이유 하이 주얼리 - 용

TECHNICAL DATA

Grisaille High Jewellery – Dragon

Reference	2017C/000G-096C Hallmark of Geneva certified timepiece
Caliber	1120 Developed and manufactured by Vacheron Constantin Mechanical self-winding 28.40 mm diameter, 2.40 mm thick Movement power reserve: approximately 40 hours 2.75 Hz (19'800 vibrations/hour) 144 components 36 jewels
Indications	Hours and minutes
Case	18K white gold set with 146 baguette-cut diamonds (approx. 7.10 cts) 40 mm diameter, 8.90 mm thick Crown set with an inverted brilliant-cut diamond (approx. 0.10 ct) Transparent sapphire crystal caseback
Dial	"Green" <i>Grisaille</i> enamel representing a dragon
Strap	Dark green Mississippensis alligator leather with alligator leather inner shell, hand-stitched, saddle-finish, large square scales
Clasp	18K white gold pin buckle set with 16 baguette-cut diamonds (approx. 0.60 ct)
Presentation box & accessory	Les Cabinotiers model

Unique timepiece

« Pièce unique », « Les Cabinotiers » and « AC » hallmark engraved on the back of the timepiece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리크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너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NOT MANY.

